이코노 & 비즈 피플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사장

"엔텍합 문제 결단 내릴때 됐다"

〈대우일렉 우선협상자〉

"금융상 애로 발생한 듯…차순위자와 협상 검토"

저신용·저소득층 금융 지원 등 자활 사업 추진

"대우일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엔텍합은 이미 최종 납입일을 넘겼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분 57%를 보유한 대우일렉트로닉스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 장영철(55) 사장은 12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엔텍합에 금융상 애로가 발생한 듯하다"며 "차순위자와 협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장은 이날 광주시와 '빛고을 돌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빛고을 돌봄사업'은 광주시의 저소득층 자활지원 복지사업과 캠코의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연계해 지역 내 저신용, 저소득층이 건실한 경제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40%대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금융소외계층이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10%대로 낮출 수 있어 연 30%대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캠코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 상담채널 운영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 ▲채무조정을 통한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 ▲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장 사장은 "캠코가 서민금융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바꿔드림론, 행복잡(job)이 프로젝트, 캠코 두배로희망대출, 채무재조정, 소액대출 등의 기능을 강화해 서민의 신용자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빛고을 돌봄사업처럼 서민금융과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연계해 금융소외자를 건실한 경제적 주체로 복귀시키는 종합자활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캠코는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사장은 "광주 남구의 경우 재정이 열악해 자체 개발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인 캠코가 대신 개발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남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익적 사업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년전 가격" 금호동 진흥 더루벤스 관심

주방 가전·붙박이장 제공

대형 평형 내집마련 '찬스'

더루벤스 주방 모습.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 '금호동 진흥 더루벤스' 잔여세대를 특별분양에 나서 내집 마련의 실수요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4년 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구지역에 위치한 데다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마지막 공급 아파트라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금호동 진흥 더루벤스는 지하 2층·지상 9~15층 7개동에 전용면적 165㎡(49평) 330가구로 지어졌으며, 지난 2009년 입주가 시작됐다. 더루벤스는 교육과 교통, 문화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상무지구에 근접해 있으며 전 세대 남향배치, 발코니 확장, 주방가전·붙박이장 풀옵션 무상 제공, 천정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등 편리성과 경제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또 실입주금 1억원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이 아파트는 분양 후 분양가격이 처음 분양시점보다 낮아질 경우 낮아진 분양가격으로 다시 계약하는 계약조건 보장제를 광주 최초로 실시, 분양조건이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다며 내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할인 폭이 큰 미분양 물량이나 하락폭이 큰 기존 주택을 매입할 적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이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달 들어 용봉동과 수완지구 등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면적이 30평형대인 것을 감안하면, 광주지역에는 당분간 대형 평형의 공급물량은 적을 것"이라며 "대형 평형을 바라는 수요자에게 지금이 내집 마련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7개 저축銀 매각 지연 되나

부산저축銀비대위 매각 반대 농성…실사 중단

오는 12일 입찰 공고가 날 예정이던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이 부산저축은행의 일부 투자자 반발로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관리인은 회계법인을 통해 지난 2일 착수했던 자산실사를 9일 중단했다. 실사를 하던 회계법인도 일단 부산저축은행에서 철수한 상태다.

앞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9~10일 부산저축은행 초량본점을 점거, 농성을 벌이며 강제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매각 이후 정상화하면 예금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예금자 입장에서 매각 방안은 나쁠 게 없지만 주로 투자 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매각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12일 매각 입찰이 공고될 예정이던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예보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입찰을 공고한 뒤 이들이 증자 명령 이행 시한인 내달 중순까지 정상화에 실패하면 바로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입찰 공고가 연기되면 전반적인 매각 일정이 지연되면서 7개 저축은행 정상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상화가 지연되면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등 부작용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입장에서는 거래 저축은행이 빠른 시기에 정상화해야 예금 등의 회수가 가능하고 금융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며 "저축은행 정상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은 분리 매각된다.

예보는 다만 이번에 매각 대상 저축은행이 7개에 달하는 데다 규모도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해 입찰 참가 자격은 옛 삼화저축은행 매각 때보다 한층 완화하기로 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 입찰 참여 기준은 자산 3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이거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포함된 컨소시엄 등이다.

따라서 자산 기준이 2조원대 안팎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쓰저축은행(군산.제주)도 이번 주부터 재매각이 추진되며 예나래저축은행(전주 등 전북)은 현재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과 금리差 0.02%P

외면 받는 '적금'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간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이던 정기적금이 외면받고 있다.

1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340조9621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3조2063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4대 시중은행의 총수신도 611조4595억원으로 작년말보다 17조3852억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들어 넉 달간 원화대출 증가액 14조1995억원을 3조원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은행 수신 가운데 정기적금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기적금 잔액은 지난달말 현재 21조6296억원으로 작년말보다 9892억원 줄었다.

정기적금은 작년 8월 이후 넉 달간 23조원대를 유지했지만, 작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줄면서 1조4270억원이나 감소했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5일까지 '스승의 날 감사의 선물 제안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직원들이 스승의 날 선물로 인기가 높은 와이셔츠와 넥타이 등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40대男 패션 코드는 '보라'

광주지역 40대 남성은 보라색 넥타이를 특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검은색 정장과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하지만 성취감이 느껴지는 날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는 등 기분에 따라 다른 패션을 선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내 신사복 브랜드인 제일모직 갤럭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40~49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검은색 정장을 즐겨 입는 응답자가 52%로 가장 많았고 감색(20%)과 회색(16%), 갈색(11.2%)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셔츠 색상은 푸른색(38.4%), 회색(18.4%), 초록색(13.2%) 순이었으며 넥타이 선호도는 푸른색(29.2%), 붉은색(19.4%), 보라색 및 갈색이 각각 12.2%였다. 지역별로 넥타이 선호 색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광주에서 보라색 선호도는 24.2%로 전체 응답자 선호도 12.2%의 두 배에 달했다. .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